

일주문

인드라망 제27기 불교기능학교
인드라망생명공동체 대표 도법 스님은 8월 19일~10월 21일 매주 화, 목 목동 인드라망교육도장에서 귀농이론교육을 실시한다. (02)576-1886

월정사 산사음악회
평창 월정사 주지 정법 스님은 8월 13일 월정사 경내에서 대한령국제음악회 일환인 월정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33)339-6800

봉은사 입시특강
서울 봉은사 주지 명진 스님은 8월 11일 봉은사 법왕루에서 황농문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초청 2011 대입수능 입시특강을 개최한다. (02)511-6070

파라미타 디카 공모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 회장 도후 스님은 8월 20일까지 제6회 디카공모전 출품작을 접수 받는다. (02)723-6165

조계사신도등록수계법회
서울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은 8월 27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조계사 신도등록을 위한 특별수계법회를 봉행한다. (02)732-2187

맑고향기롭게 2010송기행
맑고향기롭게 이사장 덕현 스님은 8월 21일 영천 치산계곡에서 2010송기행 '경상북도도움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02)741-4696

법륜 스님 즉문즉설 강연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은 8월 15일 부산 KBS공개홀에서 즉문즉설 강연을 개최한다. (02)587-8900

東大전통사찰음식연구소 수료식
이실열 동국대 전통사찰음식연구소 소장은 7월 13일 동국대 학림관에서 사찰음식 조리과정 제1기 수료식 및 졸업작품 전시회를 개최했다.

MY Leaders Club 참가자 모집
신성기 불교아카데미 이사장은 8월 20일까지 제9기 MY Leaders Club 참가자를 모집한다. (02)2278-1087

<인사> 금강대학교
금강대학교(총장 성낙승)는 8월 1일자로 인사를 단행했다. △기획관리처장 이운영 △교학처장 고수현 △불교·복자학부장 최기표 △취업지원센터장 조성환

■ 박물관교육학 제1호 박사 고관화박물관 한선학 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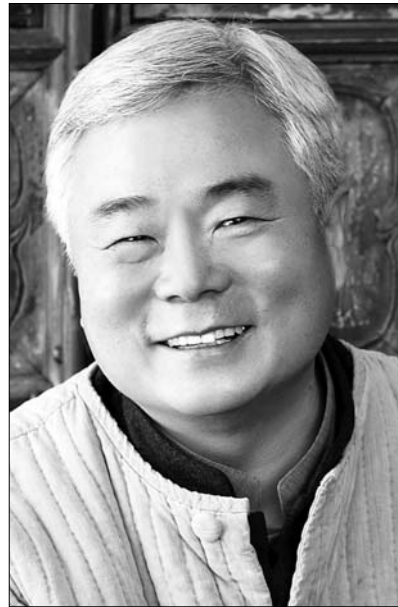
“박물관, 특성화 피해야 한다”

“박물관들 가운데 전시를 쉽게 생각 하는 풍토가 만연해 있어 문제입니다. 특화된 전시물·프로그램을 통해 차별성을 피해야 합니다.”

원주 고관화박물관 한선학 관장(원주 명주사 주지·사진)이 세계 최초의 박물관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한 관장은 최근 한양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관화의 박물관교육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에서 박물관 교육의 새로운 방법과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한선학 관장의 논문에는 고관화박물관을 운영하며 얻은 노하우와 고민이 오롯이 담겨있다.

“고관화박물관에서는 학생들에게 극락세계를 설명하고 경전에 나오는 칠보(七寶)를 직접 꾸미게끔 합니다. 3D 기술 등이 응용되면 판화를 직접 제작하는 것 같은 경험을 통해 판화의 내용을 더 쉽게 각인할 수 있습니다.”

한 관장은 10여 년 동안 전세계를 돌며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고관화를 수집해 왔다. 국내 유일의 고관화박물관을 설립할 만큼 모자진 고관화는 한



국 700여 점, 중국 1500여 점, 일본 200여 점, 티베트·몽골 800여 점, 인도·네팔 등 300여 점 등에 이른다.

15년간 군종장교로 복무하며 군포교에 헌신했던 한선학 관장은 판화만을 수집해 왔다. 국내 유일의 고관화박물관을 설립할 만큼 모자진 고관화는 한

매진해 왔다. 한 관장이 박사학위를 취득하게 된 과정 또한 고관화에 대한 열정 때문이었다. 한 관장의 열정은 고관화박물관을 통해 박물관형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인 ‘뮤지엄스테이’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고관화, 불화 등은 불교 대중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불교문화콘텐츠의 보고(寶庫)이지요. 수많은 판화에 그려진 삽화에서 캐리커처만 분리해 내도 무궁무진한 불교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한 관장은 “박물관이 발전한 나라들은 박물관이 유물 보존·전시 수준을 넘어 교육 기능이 강조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한국의 전통문화를 형성한 불교계가 박물관의 교육적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선학 관장은 “전국 사찰의 성보박물관이 각 지역의 문화예술교육기관으로서 평생교육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우리 문화를 바로 알아 불교가 증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동국대 대학원 석사학위 김성구 이화여대 명예교수

불교는 과학적 영감 주는 미래의 종교

“마음과 물질의 본질에 대한 과학적 연구결과를 철학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서양철학의 전통적 용어와 개념으로는 이 작업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나 불교철학으로는 가능합니다.”

김성구(사진) 이화여대 물리학과 명예교수는 최근 동국대대학원 불교학과에서 취득한 석사학위 논문 ‘물리학과 인지과학의 통섭적 이해를 위한 천태적 접근 연구’에서 마음과 물질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는 데 천태사상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과학의 마지막 꿈은 소립자에서 우주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연현상을 하나의 법칙으로 기술하는 것”이라며 “이 논문에서 특별히 천태사상에 주목하는 것은 많은 불교 경전과 논서에서 불교사상을 다양하게 해석한 것을 천태대사가 통일적인 시각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교수는 “천태사상은 세 가지 면에서 과학의 정신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 하나는 천태사상이 가진 통일성이고, 다른 하나는 교관일치 사상이며, 나머지 하나는 천태사상의 이론적 구조가 마음과 물질을 포함하는 현상계의 구조와 같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김 교수는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을 배우던 때에 반야심경의 내용을 접했

다. 그는 “물리학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점점 더 반야심경의 내용이 현대물리학의 내용과 유사하다고 느꼈다”며 불교를 공부하기 시작했으며, 현대불교신문에 ‘반야심경과 물리학’이라는 주제로 연재를 하기도 했다.

오랫동안 불교와 물리를 연구하면서 김 교수는 불교가 ‘미래의 종교’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는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우주적 종교(cosmic religion)라는 말을 사용했다. 우주적 종교는 미래의 종교로서 과학에 영감을 주고 그 교리가 과학적으로 뒷받침 받는 종교를 뜻한다. 불교가 바로 미래의 종교의 좋은 후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불교의 용어와 개념을 현대과학적 용어와 개념으로 정리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은은 기자

금산사 삶을 되돌아 보는 수행 프로그램

김재 금산사(주지) 원행은 7월 28일~8월 1일 경내 서래선원에서 불교적 수행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되돌아보는 수행 프로그램 ‘禪, 나를 깨치다’를 진행했다.

행사에 참여한 20여 재가자들은 간단한 사찰예법과 금산사 일원의 문화유산 해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행에 돌입했다. 참가자들은 예불과 108배, 수련원장 일감 스님에게서 바른 호흡법과 좌선 특강, 맨발로 걷기명상, 선요가테라피, 300배 정진, 발우공양, 운력, 포행 등 집중 수행을 통해 ‘나는 누



구인가’라는 화두 속에서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고자 노력했다.

특히 마지막날인 8월 1일에는 3000배 정진용맹정진 후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으로부터 미륵신선계를 수지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세계평화연합법인회 세계평화기원대법회

(사)세계평화연합법인회(총재 청암)는 7월 30일 대구 문화웨딩홀에서 총재단, 회장단 및 임원진 추대를 겸한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대일불교조계종 종정 법정 스님의 대회사로 시작된 이날 법회는 1부 평화기원기도 2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1부 평화기원기도에서는 명예총재 인왕 스님, 총재 청암 스님과 부총재단, 명예회장 신희 스님과 회장 연화 스님 등 총재 회장 임원진이 추대됐다. 평화대사와 평화기장 임명장 표창장 등도 수여됐다. 총재 청암 스님은 법어를 통해 ‘부



처님 말씀의 실천이 곧 평화이다. 불법으로 이웃을 대하고 행하면 바로 평화가 올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회장 연화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부처님 평화사상을 실천하기 위해 화해와 협조를 모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02)837-2003 조동섭 기자

영천 충효사 마정수기대법회

영천 충효사(회주 해공)는 7월 29일 충효사 대불전에서 제 228회 ‘국은운장 호국안전 순국선열 위령대제 및 천도대제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네 팔 뭉치사원 왕다라마 큰스님을 초청해 마정수기대법회를 봉행했다.

회주 해공 스님은 “마정수기’는 우리가 수업을 통해 지은 모든 업장을 수기를 받는 찰라에 실패종의 황역을 모두 소멸케 하는 큰 인연을 짓는 대법회



성스러운 의식’이라고 말했다. 충효사는 매월 18일 지장재일 기도도량으로서 지장대불전에서 불교전통 의식으로 봉행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순법선 대구지사장

세계제일 적중률을 자랑하는 구단구공법

집중 5일완성

저자 : 법화 종현 (정흥교) 큰스님 직강



· 녹아선원장 · 불교학과교수 · 구단구공법 저자

강의

월·수 : 저녁 7시 - 9시 금·토·일 : 오후 1시 - 5시 직접상담 : 010-7415-0803

◆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공합, 태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신동법으로 미래를 예측함.

◆ 사찰·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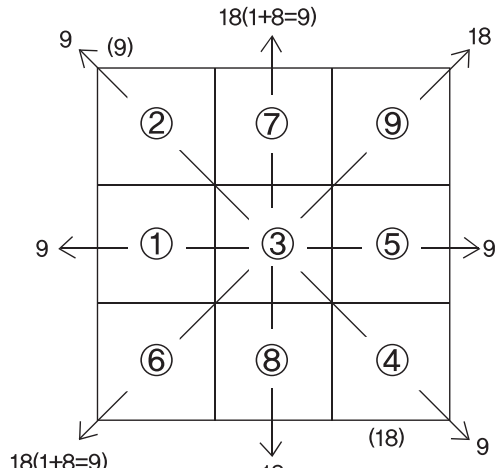
◆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 구단구공으로 짚어 귀신뽑아 조상천도연계.

◆ 교육이수 후 즉시 영업 가능함.

◆ 특전 : 특별장학금 (50%) 특허출원번호 : 40-2010-0009061

홈페이지 참조 - www.psa.or.kr [구단구공법] 41-2010-0004261



구단구공 원리도

Table with 4 columns: 학과, 기간/요일/시간, 강의과목, 비고. Lists various courses like Buddhism, Psychology, and Astrology with their respective schedules and topics.